

설천면 태권도 배후도시 성장 역점

무주군, 시·도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발표 평가서 당위성 강조 국토부 도시재생 특별위, 9월 중 대상지 확정... 공모 선정되면 사업 탄력

무주군이 10일 설천면을 도시재생을 통한 청정자연,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의 배후도시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광역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도선정 도시재생뉴딜사업 최종 발표 평가에는 이종현 농촌활력과장을 비롯해 조영자 지역재생팀장,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이 참석했다.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설명에서 한류의 원조이자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인 태권도를 테마로 한 태권도 시로서 청정지역, 관광문화로 행복한 설천의 도시재생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어 "주민을 위한 시설로 낙후된 산도봉장터를 리모델링 및 복원화하고, 각종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비롯한 태권 스테이션 조성, 남대천 눈꽃길 조성, 주민 삶의 질을 개선시킬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민·관이 뽐뽐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은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역량강화에 총력을 쏟을 수 있도록 합심해 지원하겠다"며 "설천면이 2021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꼭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이 공모 신청한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정 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태권도 상징조형물이 들어서는 태권로드 조성과 남대천에 포켓워터와 데크로드, 태양광 가로등을 조성하



태권도 배후도시 구상도.

는 남대천 눈꽃길 정비 등으로 설천면이 명실공히 태권도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총사업비 192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될 경우 국비 80억 원의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설천면의 활성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설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태권도의 배후도시로서 입지 강화와 함께 중심 상권 거점으로 조성되면서 방문객 유입 등으로 상권 활력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중, 최종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내년도 예산확보 총력

장영수 군수, 기획재정부 예산실 방문해 사업 타당성 설명

장수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해 정부예산확보를 위한 2022년도 주요사업 예산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장영수 군수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실장과 강완구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2022년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건의한 주요사업은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196억원)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42억원)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생태축 복원사업(58억원) 등으로 장수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다.

특히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마을 조성사업은 경남 함양군과 연계해 호·영남의 경계인 백두대간 육십령에 히스토리밍센터와 가야길, 힐링·아웃도어 체험촌 등 가야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서화합과 역사관광·교육의

장 마련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불명수, 지하수 유입 차단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현안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도로개설로 인하여 단절된 금남호남정맥 자고개의 마루금을 연결해 산림생태복원과 백두대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취하기 위한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에 대한 당위성도 적극 설명했다.

장영수 군수는 "군민 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기재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남대천에 붓어 치어 3만여 마리 방류

무주군이 10일 남대천에 붓어 치어 3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무주군의 이날 치어 방류는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어족 자원 조성 및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에서다.

방류한 붓어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 치어 크기는 전장 4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다. 이날 방류 행사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여성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류사업에 사용되는 붓어 종자는 전라북도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배양된 치어로써,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된 건강한 수산종자의 방류를 통해 관내 어업생산력의 강화가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반려동물 등록 사진신고 9월말까지 하세요'

무주군은 반려동물 등록 사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10일 밝혔다. 동물유실 방지 등 반려동물 문화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견이다.

등록 방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지원과 반려동물 등록 신고업무 처리하고 있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은 맹견이 아닌 경우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부남면으로 그 외 무주읍과 안성면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소유주는 9월말까지 자진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접종율 '도내 1위'

1차 접종 65.9% · 2차 접종 27.6% 완료

진안군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18시 기준 군민의 65.9%가 1차 접종을 완료해 도내에서 접종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은 백신 대기자에 대해서는 전화 연락을 취하고, 읍면별 미접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8~9월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전 군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차 접종 완료자가 7,017명으로 접종율이 27.6%에 달하고 있는 등 높은 접종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에는 택배기사 및 요식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 대면업무가 많은 직종 종사자들에게 지자체 자율접종 1차를 진행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18~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해 접종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접종 사각지대(장애인, 미등록 외국인 등)에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병행하고 고령층(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백신 접종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백신 접종률을 올려 빠른 집단 면역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전북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 선정

진안군은 10일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2021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청년마을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는 과소화 마을 주민의 주거이전 및 거점 마을의 의료·복지시설 등 생활 인프라 집약화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 사업에 청년 주거문제 해소와 청년 주거 집약화를 통

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마을 조성을 내용으로 공모해 현지실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돼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2021~2023년까지 총 39억원(도비 10억원, 군비 29억원)을 투입해 청년마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진안읍 노계2마을 일원에 택지를 조성하고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